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학년의 조절효과 검증*

양경선** · 장해진*** · Grace H. Chung****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부모 관여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러한 관계가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청소년의 학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에 조사된 서울교육복지건강패널 3차년도 자료(초6, 중3)를 활용하였으며,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응답한 총 630쌍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소년 자녀의 성별과 어머니 근로여부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부모의 관여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조절효과가 발견되었고, 이러한 효과는 학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초기(초6)는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상관없이 부모의 시간제한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낮았지만, 청소년 중기(중3)는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적은 경우에만 부모의 관여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연관성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체라는 것과 함께 부모의 양육과 실제 행동이 일치할 때 청소년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일상생활에서 본이 된다는 것, 즉 모델링이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부모의 관여, 역할모델, 조절효과

* 본 논문은 한국가족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하여 우수포스터논문상을 수상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NRF-2013S1A5A2A03044920).

** 양경선(주저자): 양경선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청소년, 부모-자녀 관계, 빈곤, 학교폭력 등이다. E-mail: yks1015@snu.ac.kr

*** 장해진(제2저자): 장해진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아버지 양육, 부모-자녀 관계 등이다. E-mail: wkdgowls22@snu.ac.kr

**** Grace H. Chung(교신저자): Grace H. Chung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이자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 다문화가족, 가족스트레스이다. E-mail: gracechung@snu.ac.kr

I. 서론

우리나라는 만3세 이상 국민의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이며(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 또한 2018년 기준 초등학교 고학년 81.2%, 중학생 95.9%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김윤화, 2018).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은 스마트폰의 보급률을 높임과 동시에 청소년 및 가족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며 삶의 방식을 바꿔 놓고 있다. 청소년의 높아진 스마트폰 보급률에 따라 가장 먼저 대두된 것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이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스마트폰 과의존은 많은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과몰입, 스마트폰 과다사용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며 용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지나치다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신성철·송희원, 2019).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고위험군+잠재적위험군)은 30.2%로 유아동 22.9%, 성인 18.8%와 비교해 봤을 때 높은 수준이며, 2020년 현재 작년 대비 0.9% 증가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전 연령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과의존 위험군 분류기준 중 더 심각한 의존 유형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의 경우 청소년 3.8%, 유아동 2.3%, 성인 2.8%로 나타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청소년의 스마트폰 고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과의존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시간이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부재하나, 바른 ICT 연구소(2018)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률 상위 20%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그 외 청소년들보다 약 1.5배인 주 평균 63.5시간, 즉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을 스마트폰 사용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소셜미디어 활동은 건전한 청소년 하위문화 형성, 또래 간 의사소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김병년, 2013; 배성률·이창호, 2016; Ling, Birgitte, Katz, & Mark, 2002), 교육적 목적의 올바른 스마트폰 활용은 학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은 부모의 통제와 같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조절하는 변인

이 개입되었을 때를 전제로 한다(김병년, 2013; 김지혜·정익중, 2010). 통제되지 않은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은 성장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불안정한 청소년에게 특히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스마트폰 과사용은 청소년의 학업(서인균·이연실·서태균, 2015; 이정화·박정언·최선희 2008; 장익진, 2016), 사회관계(김병년, 2013), 또래관계(김혜순·변상해, 2015), 공격성 및 폭력성(김소영, 2016; 박미경·김진주·강균영, 2018)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청소년이 적절한 수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상준, 2018).

높아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율로 발생하는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장석진·송소원·조민아, 2011),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정진희·권오영·김석준, 2018). 특히 부모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많은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자녀 관계, 부모 양육태도 및 애착관계는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충래·김소연, 2016; 백소진·오홍석, 2017; 이윤미·권윤나·채규만, 2019; Lian, You, Huang, & Yang, 2016; Xie, Chen, Zhu, & He, 2019).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인 관여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많지 않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고,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부모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장려되고 있는 만큼(이연정·이소영·이아름·반건호·최태영·김지연 외, 2015), 부모의 관여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모의 매체이용에 대한 관여는 자녀의 매체이용시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이수진, 2015; Nathanson, 2001), 주로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부모의 관여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박수익, 2015; 임남균·류성진, 2012; Van den Bulck & Van den Bergh, 2000). 부모는 텔레비전이 가지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효과와 같은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규칙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관여하게 되며, 이러한 부모의 개입은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또한 미디어 매체의 한가지로,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개입할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은 텔레비전과 달리 여러 가지 기능과 내용을 제공하고, 휴대성이 용이하며,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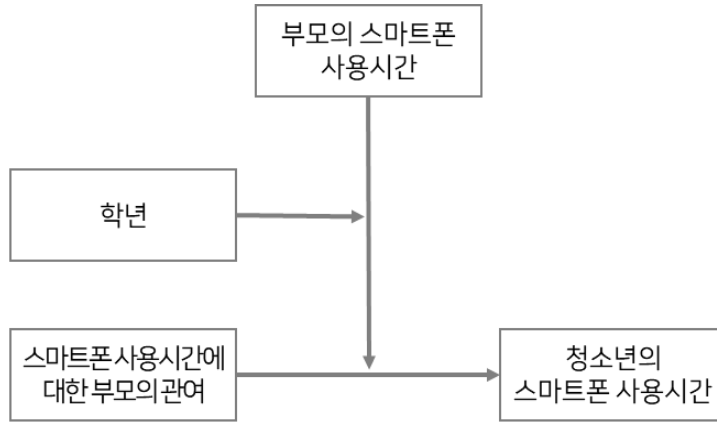
다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부모 관여의 영향력이 텔레비전과는 다를 수 있다(양수빈·고민삼·이의진, 2014).

한편,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통제하며 관여하는 것만으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반두라(Bandura & Walters, 1977)의 사회학습이론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것을 어떻게 인지하는지가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관찰과 모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녀들은 부모의 관여에 의해서도 움직이지만, 부모의 일상을 통해 삶의 방식을 배우기도 하는 것이다(김우찬·이윤석, 2009; Terras & Ramsay, 2016).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관여한다고 해도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면,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배워 부모의 관여와 상관없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관여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여 청소년 중기가 되면 자신의 주장이 강해질 뿐 아니라, 부모의 시야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Galinsky, 1981; Hawk, Keijsers, Hale III, & Meeus, 2009).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의 역동이 변화하게 되고, 부모의 일방적인 관여보다는 일상적인 삶에서의 모습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부모의 관여와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관계가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차이가 청소년 초기보다는 청소년 중기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직 수행된 적 없는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학년의 조절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이해를 확장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중독예방 교육과 올바른 스마트폰 지도 방안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청소년의 학년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부모의 관여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은 기존 핸드폰의 문자, 전화 기능에 게임, 정보검색, 음악, 동영상 감상 등 시간과 장소를 구애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손안의 컴퓨터이다(이영선·김래선·조은희·이현숙, 2013). 다양한 기능 덕분에 빠른 보급률을 보이는 스마트폰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삶과 소통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며 점차 청소년의 삶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어가고 있다. 스마트폰의 SNS를 통한 의사소통 방식은 청소년들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김병년, 2013), 다양한 정보에 대한 스마트폰의 높은 접근성은 청소년의 학습방법과 여가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다(이현정·유현순, 2019; 장익진, 2016).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중학생 2시간 24분, 고등학생은 2시간 15분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윤화, 2018).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점차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사회관계, 또래관계, 신체건강, 학업, 정서적응, 공격성 및 폭력성 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상 불안정한 성장 단계이기에 청소년의 자기조절 능력은 성인보다 낮을 수 있으며, 요즘 청소년은 인생의 초기부터 기술집약적 매체경쟁시대에 노출되었기에 신규매체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특징을 가진다(양영중, 2002; 안지은·우도현·성현아·배성만, 2020; 이해경, 2009; Augner & Hacker, 2012). 따라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뿐 아니라 과도하게 사용할 여지가 있다. 더불어, 또래관계를 중시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은 소통매체이자 오락의 도구인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게 하기도 하며(김동일·이윤희·이주영·김명찬·금창민·남지은 외, 2012; 이영선 외, 2013; Lee, Kim, & Choi, 2017), 청소년기에 당면하게 되는 학업 스트레스 또한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거나 중독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혜숙·전종설, 2019).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가지도록 유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가장 쉽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하위영역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청소년의 신체, 인지, 사회, 정서 발달 등 다양한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수면장애, 안구건조증, 목, 허리 통증 등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이는 잠자기 전에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수면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우울 성향을 증가시킨다는 Lemola, Perkinson-Gloor, Brand, Dewald -Kaufmann, & Grob(2015)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청소년의 인지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성적이 낮아진다는 상관관계가 밝혀지기도 했다(이정화 외, 2008; 장익진, 2016; Samaha & Hawi, 2016). 또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청소년의 폭력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학교폭력 간의 관계를 연구한 박미경 외(2018)에 따르면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학교폭력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강화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우울, 폭력성 간 관계를 연구한 김소영(2016)은 1차년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증가는 2차년도의 청소년 우울과 폭력성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스마트폰 의존이나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류세인·조인숙, 2015; 박정혜, 2018). 물론 스마트폰의 적절한 사용은 부족했던 의사소통과 지리적 제한을 보완하여

사회자본을 증가시키고 또래관계의 확장을 용이하게 하는 등 청소년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병년, 2013; 이영선 외, 2013).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는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할 경우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며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관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스마트폰 중독과 의존을 예측하는 다양한 요인 중에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요인으로, 조기에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또래와 함께하거나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녀의 청소년기에도 부모는 여전히 일차적 사회화 기관으로서 자녀의 삶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 왔다(신나나·도현심, 2000; 손승영, 2009).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방식 또한 청소년 개인의 사적영역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영향력을 밝혀 왔다.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부모요인으로는 부모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김영미, 2015; 여종일, 2015), 부모의 양육태도(노충래·김소연, 2016; 백소진·오홍석, 2017; 주석진·조성심, 2015; Kim, Shin, & Lee, 2017; Kim, Kang, & Lee, 2020), 부모애착(이윤미 외, 2019; 최선우·김승현, 2015; Xie et al., 2019)이 연구되어 왔다. 가정에서 긍정적 양육태도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기 쉽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한 대인관계에 몰입하지 않게 되지만(김대명·조준수, 2015; 문두식·최은실, 2015), 부모의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여 가상현실의 대인관계에 몰입하게 하고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충래·김소연, 2016; 류경희·홍혜영, 2014).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서도 부모의 관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양육행동으로써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스마트폰 이전 세대에 심각한 중독 문제를 일으

켰던 매체 중 하나인 텔레비전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매체이용에 대한 부모의 관여를 3가지 유형(제한적 관여, 설명적 관여, 공동시청)으로 나누어 설명한다(Bybee, Robinson, & Turow, 1982; Valkenburg, Krackmar, Peeters, & Marseille, 1999). 먼저 제한적 관여는 자녀의 매체이용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청시간이나 특정 내용의 프로그램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로 설명적 관여는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중이나 시청한 후에 자녀와 대화하면서 해당 내용이나 매체 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식으로 중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시청이란 부모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매체 시청과 관련된 대화를 제외하고 시청 경험만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모의 관여 행위는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조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세 가지 관여행위 중에서도 특히 제한적 관여행위가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역, 2015; 안선경, 2004; 이은미, 2002; An & Lee, 2010; Warren, 2005). 이는 제한적 관여가 직접적으로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의 관여이기 때문일 것이다. 공동시청 유형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시청하는 것, 즉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에 방점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교육적 지도와 통제적 의미가 약할 수 있다(Nathanson, 1999). 공동시청이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량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안선경, 2004; Valkenburg et al., 1999). 또한, 설명적 관여의 경우에는 시청내용을 함께 토론하면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녀의 계획된 시청습관을 향상시키는 등의 효과는 가져올 수 있지만(안선경, 2004), 시청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

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모중재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Austin, 1993; Nathanson, 1999, 2001).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은 중독성을 가지며(Horvath, 2004; McIlwraith, 1998) 부모의 관여와 지도 아래에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무분별하게 과용된다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스마트폰 이전 시대에 이용시간 과용 문제가 논의되었던 텔레비전의 연구결과가 스마트폰 사용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하지만 매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체의 속성이나 이용 대상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김형지·정세훈, 2015). 텔레비전과 달리 스마트폰은 휴대성을 가지며(황용석·박남수, 2011),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자신의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Valkenburg, Piotrowski, Hermanns, & de Leeuw, 2013). 따라서 스마

트폰은 텔레비전보다 부모가 관여하기 어려운 영역일 수 있고, 관여한다고 해도 텔레비전만큼 그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기능 중의 하나인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과 부모의 제한적 관여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Kalmus, Blinka, & Olafsson, 2015)와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이 스마트폰 높은 중독 경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박남수·오하영, 2016; Chang, Chiu, Chen, Chiang, Miao, Chuang, & Liu, 2019)를 볼 때, 부모의 제한적 관여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3.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학년의 조절효과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부모의 직접적인 관여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일상을 통해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김우찬·이윤석, 2009). 반두라(Bandura & Walters, 1977)의 사회적 학습이론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역할모델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반두라는 사람의 특정행동을 모방과정의 결과로 보았는데, 모방과정이란 특정 사람을 역할모델로 지정하고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억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모방의 대상이 되는 역할모델은 대상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선정된다.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부모는 여전히 청소년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삶의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역할모델로 여겨진다(Bryant & Zimmerman, 2003). 역할모델의 행동 중에서도 특히 반복적으로 관찰된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은 일상에서 쉽게 관찰 가능하여 반복적으로 자녀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자녀가 모방할 여지가 많은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관여한다고 해도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면,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배워 부모의 관여와 상관없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들(김우찬·이윤석, 2009; Barradas, Fulton, Blanck, & Huhman, 2007; Bleakley, Jordan, & Hennessy, 2013; Hefner, Knop, Schmitt, & Vorderer, 2019; Lam & Wong, 2015)이 부모의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사용, 스마트폰 사용 등의 미디어 사용시간이 길수록 자녀의 미디어사용시간 또한 길다고 반복적으로 보고하여, 부모가 자녀의 역할모델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검증해 왔다. 또한, 스마트폰의 경우 개인적으로 몸에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텔레비전과 달리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황용석·박남수, 2011). 따라서 사용시간에 대한 부모의 중재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역할모델로서의 부모 역할 또한 중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부모의 관여와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의 역동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청소년 초기를 지나 청소년 중기가 되면 자신의 주장이 강해지고 부모의 관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커져(Hawk et al., 2009), 부모의 일방적인 관여와 제재보다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스마트폰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동일하게 중독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부모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연구되어 온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부모의 관여는 초기 청소년기에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박수역, 2015; Bleakley et al., 2013). 유아, 초기청소년, 중·후기청소년으로 집단을 나누어 연구한 Bleakley와 동료들(2013)은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대한 부모의 관여, 즉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초기청소년에게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박수역(2015)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부모의 관여행위는 초등학교생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을 뚜렷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등학교생의 경우 부모의 관여행위와 텔레비전 시청시간 간에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스마트폰 사용의 경우, 텔레비전 시청과 달리 휴대성을 특징으로 갖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시야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부모가 보는 앞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가능성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부모의 관여 또한 같은 청소년기라 할지라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직접적인 관여가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부모의 관여와 제재보다는 역할모델로서의 부모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서울교육복지건강패널 자료 중 2016년 조사된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그들의 보호자 중 한 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선행연구(김우찬·이윤석, 2009; Valkenburg et al., 1999)에 근거하여, 최종분석에서는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응답한 총 630쌍의 자료(남학생 319명, 여학생 311명)를 포함하였다.

2. 측정도구 및 변수조작

1)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부모의 관여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부모의 관여는 자체개발한 “내 자녀의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한다”는 단일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평균중심화하여 사용하였다.

2)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현재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휴대전화(스마트폰)를 사용합니까?”라는 단일문항에 대해 이용시간을 시간단위로 응답한 내용을 분으로 환산하였으며,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평균중심화하여 사용하였다.

3) 어머니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

어머니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과 동일하게 “현재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휴대전화(스마트폰)를 사용합니까?”라는 단일문항에 대해 이용시간을 시간단위로 응답한 내용을 분으로 환산하였으며,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평균중심화하여 사용하였다.

4) 청소년의 학년

청소년의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을 0으로, 중학교 3학년을 1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어머니의 관여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과 청소년의 학년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으며, 청소년 자녀의 성별과 어머니의 근로여부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IV. 연구결과

1. 변인의 일반적 경향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것과 같다. 연구대상 청소년의 50.6%가 남학생이었고, 초등학교 6학년이 48.9%였다. 또한, 연구대상 어머니의 절반 이상인 65.2%가 비근로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어머니가 응답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어머니의 관여 평균점수는 3.10($SD=$.54)로 보통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159.7분($SD=$ 122.883), 어머니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127.2분($SD=$ 106.111)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어머니의 평균 이용시간보다 약 32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30)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자녀 성별	남학생	319(50.6)				
	여학생	311(49.4)				
자녀 학년	초6	308(48.9)				
	중3	322(51.1)				
어머니 근로여부	근로	217(34.4)				
	비근로	411(65.2)				
	무응답	2(0.3)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어머니의 관여			3.10	.768	1	4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			159.714	122.883	0	720
어머니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			127.200	106.111	0	780

2. 변인 간 상관관계

변인 간 상관관계는 아래 〈표 2〉와 같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보다 중학교 3학년이, 어머니가 일하지 않을 때보다 어머니가 일을 할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 스마트폰 관여 정도가 높을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짧았고, 어머니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 또한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1. 자녀 성별	1					
2. 자녀 학년	-.019	1				
3. 어머니 근로	-.019	.044	1			
4. 어머니의 자녀 스마트폰 관여	-.009	-.257**	-.119**	1		
5.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시간(분)	.110**	.088*	.094*	-.120**	1	
6.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분)	.132**	.218**	.118**	-.282**	.202**	1

a * $p < 0.05$, ** $p < 0.01$, *** $p < 0.001$

b 자녀 성별은 이분변수로 사용되었음

3. 조절된 조절효과 분석결과

분석결과,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어머니의 관여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관계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의해 조절되었는데, 이러한 효과는 학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B=.150, p<.05$).

〈표 3〉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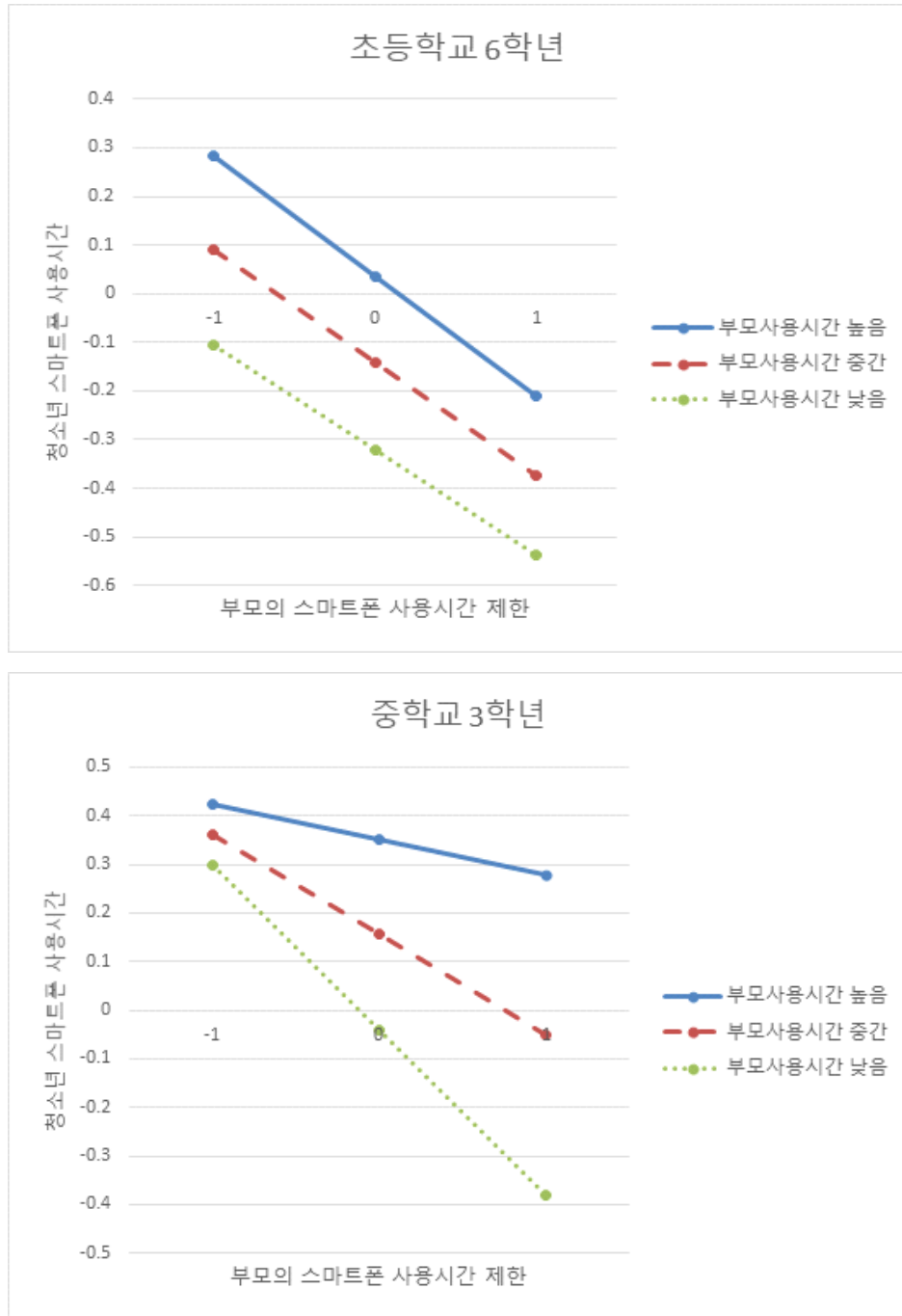
종속변수: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모델1			모델2		
	B	SE	t	B	SE	t
(상수)	-.365	.083	-4.372***	-.348	.084	-4.136***
성별(여학생)	.239	.074	3.234**	.219	.074	2.955**
어머니 근로여부(근로)	.155	.078	1.990*	.154	.078	1.977*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어머니 관여	-.219	.039	-5.593***	-.236	.058	-4.090***
어머니 스마트폰 사용시간	.139	.037	3.757***	.176	.060	2.954**
학년	.291	.076	3.830***	.298	.076	3.916***
어머니 관여 * 어머니 스마트폰 사용시간				-.015	.050	-.303
어머니 관여 * 학년				.026	.078	0.332
어머니 스마트폰 사용시간 * 학년				.015	.080	.192
어머니 관여 * 어머니 스마트폰 사용시간 * 학년				.150	.070	2.150*
	R ²			.157		

* $p < 0.05$, ** $p < 0.01$, *** $p < 0.001$

조절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랩 95%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살펴본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 결과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자녀가 중학교 3학년일 때만 어머니의 관여와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간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초기로 볼 수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청소년은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상관없이 어머니의 시간제한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 중기에 접어든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적은 경우에 어머니의 관여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연관성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표 4> 부스트래핑 결과

			F	B	Bootstrapped SE	95%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092				
초6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1 SD		-.251	.078	-.404	-.098
		Mean		-.236	.058	-.349	-.123
		-1 SD		-.221	.075	-.368	-.073
			.135**				
중3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1 SD		-.073	.071	-.213	.066
		Mean		-.210	.053	-.314	-.106
		-1 SD		-.346	.074	-.492	-.201
조절된 조절효과				.150	.070	.013	.286



[그림 2] 조절된 조절효과 분석결과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어머니의 관여가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청소년의 학년에 따라 달라지는지 조절된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복지건강패널의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그들의 어머니 총 630쌍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해 어머니가 제한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부모의 제한이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을 줄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박수익, 2015; 안선경, 2004; An & Lee, 2010; Warren, 2005). 텔레비전과 달리 스마트폰은 개인적으로 휴대하여 부모의 시야 밖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관여 정도에 따라 그 사용시간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사적영역인 것처럼 보이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에도 부모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다룬 연구들은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지만,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부모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대부분의 교육에 보호자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한 번 더 확인하여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국내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청소년기에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모가 개입하여 스마트폰 사용시기와 시간을 중재할 것을 권하고 있다(이연정 외, 2015). 즉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자신의 개입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올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일방적인 제재나 통제는 자녀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부모-자녀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규칙을 정할 때는 청소년 자녀와 함께 규칙을 정하며, 막연하게 하루에 몇 시간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식사 후 1시간' 등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는 것이 통제력을 갖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이영식, 2016).

둘째, 어머니가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자녀에게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로는, 어머니의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길수록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평균 이용시간 또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된 조절효과 분석결과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중학교 3학년일 때,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부모의 관여는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라 그 영향력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역할모델로서 부모의 역할이 연령 증가에 따라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폰은 휴대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부모가 항상 눈으로 관찰하며 관여하기 어렵다. 중학생들은 초등학생에 비해 활동범위가 넓어져 부모의 시야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모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넘어 본을 보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미디어 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시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이에 따라서 부모들은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점검하며 그것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어 고민이라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제한하고 통제할지를 고민하는 동시에 자신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함께 돌아봐야 할 것이다. 특히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과 직접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자기성찰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에서 부모의 역할모델로서의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자녀가 스마트폰을 선용하고 규칙을 정해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등 부모는 역할모델보다는 지도해주는 교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쉽센터, 2019). 부모가 스마트폰에 과의존 하는 경우,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부모가 먼저 모범적으로 사용할 것이 제안되었지만(관계부처 합동, 2016), 이러한 내용이 부모교육에 적절하게 반영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교육이 '중독' 혹은 '과의존' 등의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를 사용하여 문제 있는 사람들만 듣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기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강석영·윤민지·이동훈, 2015). 실제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은 주로 과의존 청소년의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예방적 차원에서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스마트폰은 청소년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 학교 과제, 친구들과의 소통 모두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강석영 외, 2015) 청소년의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적절한 사용시간을 지켜 올바른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중재하는 동시에 역할모델로서 기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체라는 것과 함께 어머니가 역할모델로서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부모가 자신의 양육과 행동을 일치시킬 때 자녀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하여 부모의 시야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부모의 관여를 벗어나 자율성이 증가하게 되면, 역할모델로서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미디어매체에 대한 부모관여의 효과를 스마트폰으로 확장하였으며, 부모관여의 영향력뿐 아니라 학년과 어머니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조절효과까지 확인하여 연구의 영역을 넓혔다는 데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여 연구한다면, 연령에 따른 변화인지를 더욱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부모 중 어머니에만 주목하여 연구하여 부모 전체의 영향력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어머니가 자녀양육의 주체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을 확인한 것은 의의가 있지만, 후속연구를 통해 아버지는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면 청소년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석영 · 윤민지 · 이동훈. 2015.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및 예방교육에 대한 부모, 교사, 학교 현장 전문가의 인식.” 『인문학논총』 39: 263-29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 스마트쉼센터.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아동청소년(만6-19세) 보호자용』.
- 관계부처 합동. 2016. 『건강한 스마트사회 구현을 위한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2016~2018)』.
- 김대명 · 조준수.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관계에서 불안과 우울의 매개효과.” 『교육종합연구』 13(2): 151-169.
- 김동일 · 이윤희 · 이주영 · 김명찬 · 금창민 · 남지은 · 강은비 · 정여주. 2012. “미디어 이용 대체 · 보완과 중독: 청소년과 성인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형태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0(1): 71-88.
- 김병년.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4): 208-217.
- 김소영. 20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우울, 공격성의 종단적 관계 검증: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적용.” 『중등교육연구』 64(2): 315-336.
- 김영미. 201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대처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223-243.
- 김우찬 · 이윤석. 2009. “부모가 자녀의 TV 시청시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TV 시청시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1): 29-55.
- 김윤화. 2018.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STAT Report』 18(20): 1-7.
- 김지혜 · 정익중. 2010. “빈곤은 인터넷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빈곤이 부모의 지도감독과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유형을 매개로 학교부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1(3): 29-56.
- 김형지 · 정세훈. 2015.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모중재, 학교교육 및 심리적 반발심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2(1): 87-120.

- 김혜순·변상해.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5): 117-125.
- 노충래·김소연. 2016.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7(4): 87-114.
- 류경희·홍혜영. 2014. “중학생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8): 157-183.
- 류세인·조인숙. 2015.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9): 6180-6189.
- 문두식·최은실.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10): 213-236.
- 바른 ICT 연구소. 2018. 『2017 스마트폰 이용행태 보고서』.
- 박남수·오하영. 2016.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이용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 중재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9): 590-599.
- 박미경·김진주·강균영. 2018. “융복합시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학교폭력 태도, 학교폭력 역할유형 간의 관계.”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2): 111-118.
- 박수역. 2015. “부모의 제한적 관여가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에 미치는 효과: 연령별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6(1): 5-26.
- 박정혜. 2018.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 예측요인.” 『한국자료분석학회』 20(6): 3201-3209.
- 배상률·이창호. 2016.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여가문화 및 팬덤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페이스북을 활용한 청소년 집단지성 토론단 운영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7(3): 189-218.
- 백소진·오홍석.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관계: 대인불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5): 31-54.
- 서인균·이연실·서태균. 2015. “고등학생의 학업성취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 17(1): 7-19.
- 손승영. 2009. “한국 가족의 청소년 자녀 사회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1): 57-84.
- 신나나·도현심. 200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99-113.
- 신성철·송희원. 2019.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공격성, 충동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28(4): 231-245.

- 안선경. 2004. “부모의 시청지도가 자녀의 현실인식 및 시청행태에 미치는 영향.”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3: 104-133.
- 안지은 · 우도현 · 성현아 · 배성만. 2020. “SNS 이용동기와 자기조절이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1(1): 227-243.
- 양수빈 · 고민삼 · 이의진. 2014.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부모중재 서비스 디자인 탐구.”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355-362.
- 양영중.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의존형태와 이용행동과의 관련성.”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51-567.
- 여종일. 2015.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충동성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7(1): 101-112.
- 이상준. 2018.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정신건강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20(3): 47-67.
- 이수진. 2015. “부모 자녀 간 시간에 관한 규칙 유무에 따른 일본 중학생의 시간관리 행동 및 시간사용 자기평가의 차이.”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4): 55-70.
- 이연정 · 이소영 · 이아름 · 반건호 · 최태영 · 김지연 · 김지훈 · 박은진 · 박준성 · 방수영 · 이문수 · 이소희 · 최상철. 2015. “아동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 조사.”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4(4): 556-563.
- 이영선 · 김래선 · 조은희 · 이현숙.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식연구-중고생 이용자의 FGI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1(1): 43-66.
- 이영식. 2016. “아이와 갈등 줄이는 ‘내 아이 스마트폰’ 관리법.”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4&nttId=5181 에서 2020년8월11일 인출.
- 이윤미 · 권윤나 · 채규만. 2019. “중학생의 부모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59: 55-79.
- 이은미. 2002. “부모의 시청지도가 초, 중생 자녀들의 텔레비전 시청 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방송학보』 16(3): 397-421.
- 이정화 · 박정연 · 최선희. 2008. “중학생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인터넷 사용 · 휴대폰 사용 ·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20(2): 209-221.
- 이해경. 2009. “10 대 청소년들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예측변인들: 20대, 30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1): 117-153.
- 이현정 · 유현순. 2019.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생활체육 참여의도, 참여빈도, 여

- 가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3(2): 57-70.
- 임남균 · 류성진. 2012. “부모의 제한적 시청지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그들의 TV 프로그램 시청행위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2(1): 98-129.
- 장석진 · 송소원 · 조민아. 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 장익진. 2016. “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학업성취도.” 『교사교육연구』 55(3): 409-426.
- 전혜숙 · 전종철. 2019. “청소년 친구 및 학교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우울 ·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1(1): 1-28.
- 정진희 · 권오영 · 김석준. 2018. “부모양육방식 및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1): 596-629.
- 주석진 · 조성심.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판별요인에 관한 연구: 일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충동성, 교우관계, 모의 권위주의형 부모양육태도, 학교부적응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97-118.
- 최선우 · 김승현. 2015. “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3): 365-383.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네트워크. 2019.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황용석 · 박남수. 2011. “청소년 휴대전화 중독 요인과 중독 예방에 있어 부모교사의 역할 연구.” 『한국방송학보』 9: 309-348.
- An, SK., and Lee, D. 2010. “An integrated model of parental mediation: The effect of family communication on children's perception of television reality and negative viewing effects.”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0(4): 389-403.
- Augner, C., and Hacker, G. W. 2012. “Associations between problematic mobile phone use and psychological parameters in you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7(2): 437-441.
- Austin, E. W. 1993. “Exploring the effects of active parental mediation of television content.”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7(2): 147-158.
- Bandura, A., and Walters, R. H.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radas, D. T., Fulton, J. E., Blanck, H. M., and Huhman, M. 2007. "Parental influences on youth television viewing." *The Journal of pediatrics* 151(4): 369-373.
- Bleakley, A., Jordan, A. B., and Hennessy, M.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Pediatrics* 132(2): 364-371.
- Bryant, A. L., and Zimmerman, M. A. 2003. "Role models and psychosocial outcomes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1): 36-67.
- Bybee, C. R., Robinson, D., and Turow, J. 1982. "Determinants of parental guidance of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for a special subgroup: Mass media scholar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26(3): 697-710.
- Chang, F. C., Chiu, C. H., Chen, P. H., Chiang, J. T., Miao, N. F., Chuang, H. Y., and Liu, S. 2019. "Children's use of mobile devices, smartphone addiction and parental mediation in Taiwa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93: 25-32.
- Galinsky, E. 1981. *Between generations: The six stages of parenthood*. New York, NY: TimeBooks.
- Hawk, S. T., Keijsers, L., Hale III, W. W., and Meeus, W. 2009. "Mind your own business!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perceived privacy invasion and adolescent-parent conflic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4): 511.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Hefner, D., Knop, K., Schmitt, S., and Vorderer, P. 2019. "Rules? Role model? Relationship? The impact of parents on their children's problematic mobile phone involvement." *Media Psychology* 22(1): 82-108.
- Horvath, C. W. 2004. "Measuring television addic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8(3): 378-398.
- Kalmus, V., Blinka, L., and Olafsson, K. 2015. "Does it matter what mama says: Evaluating the role of parental mediation in European adolescents' excessive Internet use." *Children & Society* 29(2): 122-133.

- Kim, C., Kang, K. I., and Lee, N. 2020.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s of Mother-Adolescent Smartphone Dependency: The Mediating Role of Negative Parenting and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6): 58-71.
- Kim, K. S., Shin, K. S., and Lee, H. M. 2017. "The effect of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in the time of converg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oor attachm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139-149.
- Lam, L. T., and Wong, E. M. 2015. "Stress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atic Internet use by parents and problematic Internet use by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6(3): 300-306.
- Lee, H., Kim, J. W., and Choi, T. Y. 2017. "Risk factors for smartphone addiction in Korean adolescents: smartphone use patterns."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32(10): 1674-1679.
- Lemola, S., Perkinson-Gloor, N., Brand, S., Dewald-Kaufmann, J. F., and Grob, A. 2015. "Adolescents' electronic media use at night, sleep disturbance, and depressive symptoms in the smartphone a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2): 405-418.
- Lian, L., You, X., Huang, J., and Yang, R. 2016. "Who overuses smartphones? Roles of virtues and parenting style in smartphone addiction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5: 92-99.
- Ling, R., Birgitte, Y., Katz, J. E., and Mark, A. 2002. *10 Hyper-Coordination via Mobile Phon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Ilwraith, R. D. 1998. "'I'm addicted to television': The personality, imagination, and TV watching patterns of self-identified TV addict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2(3): 371-386.
- Nathanson, A. I. 1999. "Identifying and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mediation and children's aggression." *Communication Research* 26(2): 124-143.
- Nathanson, A. I. 2001. "Parent and child perspectives on the presence and meaning of parental television medi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5(2): 201-220.
- Samaha, M., and Hawi, N. S. 2016. "Relationships among smartphone addiction,

- stress, academic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with lif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7: 321-325.
- Terras, M. M., and Ramsay, J. 2016. “Family digital literacy practices and children’s mobile phone use.” *Frontiers in psychology* 7: 1-11.
- Valkenburg, P. M., Krcmar, M., Peeters, A. L., and Marseille, N. M. 1999. “Developing a scale to assess three styles of television mediation: “Instructive mediation,” “restrictive mediation,” and “social coviewing”.”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3(1): 52-66.
- Valkenburg, P. M., Piotrowski, J. T., Hermanns, J., and de Leeuw, R. 2013. “Developing and validating the perceived parental media mediation scale: A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9(4): 445-469.
- Van den Bulck, J., and Van den Bergh, B. 2000.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al guidance patterns on children’s media use: Gender differences and media displacement.”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4(3): 329-348.
- Warren, R. 2005.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in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Communication* 55(4): 847-863.
- Xie, X., Chen, W., Zhu, X., and He, D. 2019. “Parents' phubbing increases Adolescents' Mobile phone addiction: Roles of parent-child attachment, deviant peers, and gender.”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05: 1-8.

(2020. 10. 16. 접수, 2020. 12. 08. 심사, 2020. 12. 24. 채택)

Abstract

The Effect of Parents' Restrictive Mediation in Smartphone Use Time on Adolescents' Smartphone Use Time: The Moderation Effect of Parents' Smartphone Use Time and Adolescents' Grade

Yang, Kyungsun (Seoul National University)

Jang, Hae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 Grace 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martphone use time and parents' restrictive mediation in smartphone use time and how this relationship differs according to parents' smartphone usage time and adolescents' grade. Wave 3(2016) data collected in 2016 from the Seoul Panel Study of Education, Health and Welfare(SPSEHW) was used. The data collected from 630 matched pairs of mother and their children was analyzed,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of Hayes (2013). The gender of adolescent and mother's working status were controlled in all analyses. Parent's smartphone use tim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involvement of smartphone usage time and the smartphone usage time of adolescents. This effect further varied by grade. For early adolescents (elementary 6), the greater the parents' time limit, the lesser the adolescents' smartphone usage time regardless of the parents' smartphone use time. However, for middle adolescents (midd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limit and adolescent smartphone use time was more pronounced only when parents spent less time on smartphone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parents are the main actors who influence the smartphone usage time of adolescents. Findings suggest that parents have greater impact on the lives of adolescents when parenting is consistent with

parents' actual behavi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at parents and adolescents set rules for smartphone use together, and the importance of modeling in everyday life by parents for their adolescent children.

Key words: adolescents' smartphone usage time, parents' smartphone usage time, parental restrictive mediation, role model, a three way interaction model